

광주일보·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건강강좌 <129>

천식

알레르기내과 심다운 교수

-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임상강사
-천식·비염·만성기침·두드러기·약물알레르기 전문진료



전남대병원 인공와우 가족캠프 성료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의 인공와우 가족캠프가 최근 광주드림잡스플라...
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고심도 난청 환자들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며,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약물 복용 중 발작 증상 났을 처방 바꿔야

비만·알레르기 등 원인
기관지 치료제 다양화
기도염증 막는 유지요법도



알레르기내과 심다운 교수가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천식 환자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많아 천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치료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약제의 부작용도 문제가 되었고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불충분하게 치료함으로써 질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약제의 등장과 약제의 투여방법이 다양해짐으로써 치료에 따른 경과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식은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어떠한 만성질환보다도 그 경과가 크게 달라지는 질병입니다.

천식은 기도의 감수성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민감해진 기도가 특정 유발 인자에 노출되면 과도하게 좁아져 숨쉬기 곤란해집니다. 천식을 이미 앓고 있는 경우에는 먼지나 연기(천식의 유발 인자)가 기도를 자극하고 다음 증상들 (기침, 천명, 숨참, 가슴이 답답함) 중 하나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자, 비만, 성별 등의 숙주인자가 있으며 알레르겐, 감염, 직업성 감작물질 등이 대표적인 환경인자입니다. 병력과 증상에서 천식이 의심되는 환자는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 폐기능검사, 기관지 유발 시험, 기도염증 표지자 측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식은 만성질환으로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여야 하며, 복용 도중에도 천식의 발작이 있으면 약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천식에서 약물요법은 천식의 중증도와

환자 상태가 만성인지 혹은 급성 악화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천식의 치료는 발작 시에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발작 시 치료와 평상시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유지요법 치료가 있습니다. 발작 시 치료는 발작의 중증도를 파악하여 신속히 그 증상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지요법 치료는 기

도 염증을 억제하고 치료하여 천식 증상의 발현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발작 시 치료의 주된 약물은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증상완화제이며, 유지요법 치료의 주된 약물은 항염증제인 흡입스테로이드입니다.

/정리=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여름철 보신, 남도 음식으로 하세요

광주 북구, 7월13일~8월17일 강의 선착순 모집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다양한 음식을 접목해 남도의 우수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단기 특별강좌를 운영한다.

강사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인 이애섭 선생을 비롯해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이수자인 조유

순, 정금례 선생 등이 참여한다. 북구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무더위에 지치는 몸의 활력을 찾고 재충전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접목한 '여름을 이기는 보양음식강좌' 수강생 30여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음식

강좌에 대한 교육수요를 충족해 관심을 높이고 남도의 맛과 함께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2층 체험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6주간의 단기 강의 과정을 통해 ▲보

양 보기탕·새우젓 호박나물 ▲약 오리찜·무매실 물김치 ▲전해 문물회·비빔국수 ▲오리탕·영양밥 ▲입자수탕 등 총 9개 요리를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강의에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5만원(재료비 별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062-410-6642)로 문의하면 되고, 박물관 홈페이지(www.namdofoodmuseum.c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명호 전남대의대 교수, 중국서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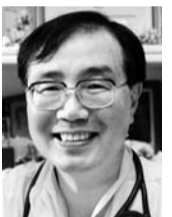
심근경색증 치료법 소개

세계적 심장학 명의로 꼽히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사진> 교수가 최근 중국학회 초청 강의 등 심근경색증 치료법을 아시아 지역 의료계에 활발히 소개하고 있다.

현재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증 연구회 회장인 정명호 교수는 최근 이틀간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서 열린 길림성심장중재술학회에서 길림의대 류빈 교수의 초청으로 '한국인심근경색증 연구에 의하면 심근경색증 치료에서 아시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특강했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수 백여 명의 중국 의료진은 정명호 교수의 오랜 연구결과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박수로 큰 호응을 보였으며, 연구방법에 대한 집중 질문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특강을 통해 류빈 교수는 한국과 심근경색증 아시아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 오사카국립



순환기센터 야수다 부원장도 동참할 예정이다. 정명호교수의외국학회 특강은 지난해 9월일본국립순환기센터와 일본 심장학회

강연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명호 교수는 심근경색증 치료에 대한 전남대병원의 명성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 위상도 세계적으로 드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의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한심장학회 50주년 연구사업으로 진행했던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KAMIR)를 통해 현재까지 6만 8000여 명의 환자를 등록해 217편(SCI 논문 200편)의 논문을 발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저지방식 유방암 환자 생존 기간 늘린다

저지방식(low-fat diet)이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시티 오브 호프 병원(City of Hope Hospital) 유방암 전문의 로완 클레보우스키 박사 연구팀은 유방암 치료 후 저지방식을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시사주간 타임 인터넷판과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전국의 40개 임상시험 센터에서 폐경 여성 약 4만 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기간의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클레보우스키 박사는 말했다.

/연합뉴스

상가원룸매매(신축)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최고급 주택) 전망최고!!
매가 9억5천만

상가 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투룸형)
보 5백 월 45만
시세 1억
매가 7천5백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1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2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3 무료반운영 -> (오전, 오후)
기초이론부터~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